

새해 첫 등교... 학부모들 “흐뭇하다” vs “걱정은 여전”

유치원생, 초1·2도 고3처럼 매일 등교

“등교 다행... 방역수칙 지키리라 믿어”

“걱정되긴 하지만 가정보육 너무 무리”

“아이가 등교하는 모습을 보니 설레네요. 학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믿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이 2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들도 매일 등교하게 됐다.

첫 개학날 등교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갑고 기쁘다”는 반응이다.

2일 서울 마포구 공덕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30대 이모씨는 “오늘 아이

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며 “학교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30대 중반 안모씨는 “이번에 연기가 개학했는데 너무 반갑다”며 “연년생 자녀를 같이 등교시킬 수 있어 특히 기쁘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2학년 손주를 둔 김모(65)씨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손이 더 많이 간다”며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자녀를 둔 30대 최모씨는 “같이 학교에 가는 걸 보니 흐뭇하다”며 “아이들도 집에만 계속 있으면 답답했을텐데 제때 학교를 갈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미소 지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등교하는 게 맞다는 말도 나왔다.

서울 종로구 운현유치원에 다니는 7살 딸을 배웅한 전모(45)씨는 “집에서만 보육하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어쩔 수 없다”며 “유치원에서 아이들 하원하면 물건을 다 닦고 주 몇 회 소독한다고 알려줘서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동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정모(42)씨는 “지방에 살다가 얼마 전에 서울로 이사왔는데 인구밀도도 높고 거리두기도 덜 지켜지는 것 같아 우

려스럽다”면서도 “학생 수가 한 반에 14~16명으로 적은 편이어서 그나마 안심이다”고 했다.

아들이 운현초등학교에 다니는 A(38)씨는 “줌(ZOOM)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나름 적응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다”며 “학교 생활을 하는 측면에서는 등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운현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 이지영(42)씨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저학년이다 보니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면 돌봄교실이라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고학년은 집에서 혼자 온라인 수업이라도 들겠지만 저학년은 그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는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수도권 밀집도 3분의 1, 비수도권 3분의



2 원칙 하에 격주 또는 주 2~3회로 나눠서 ‘쪼갠 등교’를 하게 된다.

특히 이달 초 정부가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 등교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300명 이하의 학교이거나 300명 초과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5567개

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원아 60명 이하의 작은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특수학교(학급) 소속 장애학생들도 2.5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으며 3단계에서도 1대1 또는 1대2 대면교육이 허용된다.

김민정기자



6·25 참전용사 집에 쌓인 눈을 치우는 23사단 장병들

방문해 제설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육군 23사단 제공)

강원 영동과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린 2일 육군 23사단 장병들이 삼척시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 이만중(90)씨의 집을

“방역수칙 위반해 64명 집단감염” 광주 콜센터에 과태료

최근 광주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지인 서구 보험사 콜센터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2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보험사 콜센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보험사 관리자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콜센터 지하 구내식당에는 출입자를 기록하는 수기명부와 전자출입명부(QR코드)가 설치돼 있었지만 방문

객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콜센터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건물 내부를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이슬기자

순천소방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 추진

주택화재 인명피해 매년 15% 감소 목표



순천소방서는 3월부터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15%씩 주택화재 사망자수를 줄여 나가, 오는 '24년, '20년 대비('20년 전국 주택화재 사망자수 201명)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3년간('18년~'20년)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대비 27.8% 발생하였고, 사망자수는 전체 사망자수 대비 55%를 차지한다. (화재 발생 대비 사망자 발생률 약 2배) 주거용 건축물은 전체 건물 중 63.8%, 35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은 그 중 39.8%이며, 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96%

에 달한다.

대책은 ▲ 전문성이 담보된 관리·감독 및 IOT기반 예방 체계 구축 ▲ 인명구조 우선의 현장대응 체계 운영 ▲ 화재위험성 개선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 ▲ 근원적인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소방차량 진입근반 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마을단위 안전관리 유지·관리 행정망 구축, 위험요소 정보 제공을 위한 MOU 체결, IOT기반 마을단위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전문장비 활용 화재안전 종합컨설팅, 국소화재 예방 보급·지원, 소규모 주택 현장대응 기법 개발, 단독주택 밀집 지역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관리,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를 위한 대상 기준 마련,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 지정·운영,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구입체계 구축, 주거공간 불법용도 사용 소방특별조사 실시 등이 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여 시설을 보강·관리하며, 시기별 작동·종합정밀점검, 불시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정보조사 등을 통해 매년 또는 불시에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강제되는 소방시설도 적고 정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에 취약할뿐더러 지속적인 소방시설 관리 모니터링에도 한계가 있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순천소방서는 2020년까지 시·도 조례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지원, 홍보 등을 실시하여 자율설치 추진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다”며 “이번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